

국내 간호학생 성격관련 연구 문헌고찰 : MBTI를 중심으로

홍은영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Review of the Korean Nursing Research Literature with MBTI Personality and Nursing Students

Eun-Young Ho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간호학생 대상의 MBTI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고찰하여, 최근 연구경향 파악 및 간호교육에의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문헌검색은 국회전자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NAL),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내학술지(DBPIA),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ibrary, NDSL)에서 검색어 '(간호 또는 간호학생 또는 학생간호사) and (성격 또는 MBTI)'로 검색하여 중복논문 및 연구대상자나 연구주제가 맞지 않는 논문을 제외한 총 2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개의 분석대상 논문 모두 양적연구였으며 63.6%가 비실험연구였다. MBTI와 함께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는 자기효능, 자존감, 학업적 자기효능 등의 인지-지각적 변수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그 다음으로 학업스타일, 학업 성취, 임상수행능력과 같은 학습관련 변수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에서의 대상자들의 MBTI 성격유형을 2차분석한 결과 총 16가지 MBTI 성격유형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ISTJ(12.3%), ESTJ(11.5%) 등이었다. 추후 MBTI 성격유형과 근무부서 선택과 같은 중단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MBTI 성격유형별 효율적 교수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간호, 학생, 성격, 간호연구,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trends of research on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nursing student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nursing education geared to the needs of the future. The literature was searched using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DBPIA, Korean Medical database and 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ibrary to identify studies including MBTI personality among nursing students.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22 precedent studie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of MBTI personality and nursing students. All studies were quantitative study and 63.6% of them were nonexperimental cross-sectional study. The most frequently selected category of variables was cognitive-perceptual related variables includes self-efficacy, self-esteem, academic self efficacy and etc. The most frequent MBTI personality type of nursing students was ISTJ (12.3%) and ESTJ (11.5%) was the secon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longitudinal research is recommended on MBTI personality type and nursing specialty choice.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nd for using the results of MBTI in nursing students' career guidance are discussed.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Nursing research, Converge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rant in 2020-2021.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Hong(heyne@hanmail.net)

Received October 1, 2021

Revised November 1, 2021

Accepted January 20, 2022

Published Jan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성격은 개인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기본적 경향성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일관되게 구분되는 개별적인 속성[1]으로, 지능과 더불어 학업적 성취의 중요한 예측인자이다[2-4].

간호교육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료인의 역할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진화해 왔으며, 심리사회, 의사소통, 인간성 면에서 우수성을 나타내도록 요구받아 왔고, 의료인의 교육 또한 이런 새 역할에 맞도록 진화되어 왔다[5]. 그러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관심영역, 가치관, 태도 등이 다르고, 또 학습자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며, 대처하기 때문에[6], 효과적 학업 성취를 위해 간호학생의 성격요인은 중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성격은 환자와의 관계[7] 및 직무만족[8]에 영향을 주고, 직접 간호, 행정, 교육과 연구 중에서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지에도 성격에 따라 특정 영역이 더 끌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9], 향후 간호학생들의 취업 후 직무적성이나 직무만족도 면에서도 성격은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양한 성격유형검사 중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근거로 개발된 성격유형 검사[10]로 개인상담, 팀조직, 학교 및 교육, 연구 분야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1]. MBTI는 4가지 선호성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에너지 방향에 따라 외향형(Extraversion, E)과 내향형(Introversion, I)으로 둘째, 무엇으로 정보수집을 하는가(인식기능)에 따라 감각형(Sensing, S)과 직관형(Intuition, N)으로 구분한다. 셋째,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사고형(Thinking, T)과 감정형(Feeling, F)으로 넷째, 이행양식에 따라 판단형(Judging, J), 인식형(Perceiving, P)으로 구분한다. 이상 4가지 선호경향이 조합되어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나타나며,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J, ESTJ, ESFJ, ENFJ, ENTJ 유형으로 나뉜다[10].

ISTJ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 ISFJ는 성실하고 온화하여 협조를 잘하며, INFJ는 사람에 관한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INTJ는 전체를 조합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ISTP는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적응

력을 가지고 있다. ISFP는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 INFP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 INTP는 비평적 관점을 가진 뛰어난 전략가이다. ESTP 유형은 친구, 운동, 음식 등 다양함을 선호하는 활동가형, ESFP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성격의 사교형, ENFP는 열정적으로 새 관계를 만드는 사람, ENTJ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발명가형이다. ESTJ 유형은 사무적, 실용적, 현실적인 사업가형, ESFJ는 친선도모형으로 친절,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 ENFJ는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언변능숙형, ENTJ 유형은 비전을 갖고 타인을 활력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형이다[12].

MBTI의 결과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의 MBTI의 유형에 따라 성격유형에 맞는 효율적 교수-학습방법 개발, 학습자의 성격유형에 맞는 동기유발 및 학습자의 진로지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11,13,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교육에서의 MBTI 관련 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방법, 관련 연구주제 등의 경향을 파악하여 향후 간호학생의 MBTI 성격 관련 연구 및 간호학생의 교육중재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간호학생 대상의 MBTI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고찰하여, 최근 연구경향 파악 및 간호교육에의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내 간호학생 대상의 성격유형 관련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방법적 특성을 분석한다.
- 주요 연구변수의 동향을 파악한다.
- 국내 간호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분포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생 대상 MBTI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 논문은 2021년 9월까지 KCI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국내 간호학생 대

상의 MBTI 관련 논문이다. 검색시기는 2021년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다. 1인의 연구자가 국회전자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NAL),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내학술지(DBPIA),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ibrary, NDSL)에서 검색어 ‘간호 또는 간호학생 또는 학생간호사) and (성격 또는 MBTI)’로 1차 검색된 논문의 제목을 통해 중복된 논문 및 연구대상자나 연구주제가 맞지 않는 논문을 제외한 후, 다시 초록, 본문을 모두 검토하여 연구대상자가 맞지 않거나 측정도구가 MBTI가 아닌 경우, KCI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가 아닌 논문은 제외하였고,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에 있는 논문을 추가로 검색하여 추가하였다.

Fig. 1과 같이 문헌검색을 통해 총 157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이 중에서 중복된 45편을 제외하고 112편을 일차 검토하였다. 논문제목을 통해 대상자가 맞지 않거나 연구주제가 맞지 않는 연구 78편을 제외한 3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초록과 본문을 검토하여 연구대상자가 맞지 않거나 측정도구가 MBTI가 아닌 11편의 논문을 제외하였고, KCI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을 2편 제외하고, 참고문헌을 통한 추가검색을 통해 1편을 추가하여 최종 2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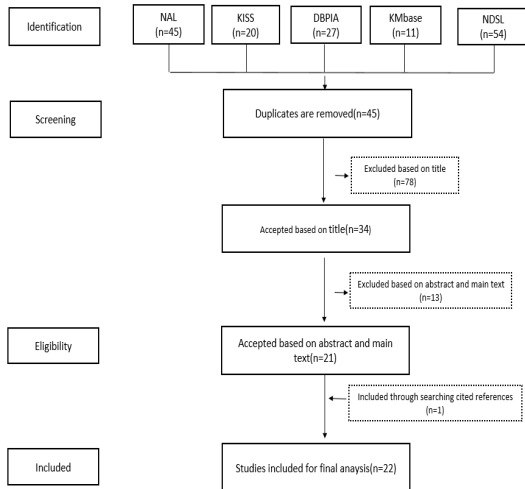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the articles retrieved and selection process

3. 연구결과

3.1 대상 연구논문의 특성

본 연구대상 논문은 Table 1과 같이 총 22편[15-36]으로 1997년 최초의 연구가 수행된 이후 2001~2010년 9편(42.9%), 2011년 이후로 12편(54.5%)으로 조금씩 증가하여 Table 2와 같다. IRB 승인을 보고한 연구는 2편(9.1%) 뿐이었으며, 표집크기는 100명 이하인 경우와 201~299명인 경우가 각각 8편(36.4%)로 가장 많았고, 100명 이하인 연구 8편 중에서는 7편은 유사실험연구였다.

대상자의 성별이 남·녀 모두 포함하는 경우는 13편(59.1%)이었고 모두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성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연구는 9편(40.9%)이었다. 연구대상자가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장 많은 학년은 2학년으로 6편(27.3%)이었고, 1학년이 4편(18.2%)이었으며, 2개 이상의 학년이 포함된 경우는 8편(36.4%)이었다.

모두 양적연구로 비실험연구가 14편(63.6%)을 차지하고 있었고, 유사실험연구가 8편(36.4%)이었다. 비실험연구는 모두 관계연구였으며, 횡단 연구였다. 유사실험연구 중 75%가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실험설계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와 t검정, χ^2 분산분석까지 실시한 연구는 9편(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관관계분석까지 실시한 연구가 5편(36.4%)이었고, 회귀분석까지 실시한 연구는 5편(22.7%)이었다.

3.2 MBTI와 관련된 연구변수 범주와 종류

분석대상 논문에서 MBTI와 관련하여 연구된 변수는 Table 3과 같이 총 35개였고, 이들 변수를 사용한 횟수는 총 49회였다. 이 중에서 인지-지각 관련 변수가 14회(28.6%)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다음으로 학습관련 변수가 12회(24.5%), 대인관계 관련 변수가 10회(20.4%) 사용되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변수는 대인관계로 4편의 논문에서 연구되었으며, 학습스타일 3편, 자기효능 3편, 스트레스 대처방식 3편 등이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view articles

(N=22)

ID	Author(s)	Year	IRB	Sample size	Gender		Grade	Study design	Variables related to MBTI
					Female (%)	Male (%)			
1	Jung	1997	No	190	N/M	N/M	2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quasi-experimental study	State anxiety before initial clinical experience
2	Lim, Yoo, Oh	2001	No	270	N/M	N/M	1-4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Scholastic assessment test score, grade point average
3	Hwang, Kim	2002	No	195	N/M	N/M	1-3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Defence mechanism
4	Park	2002	No	40	N/M	N/M	2	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posttest	Assertiveness behavior, conflict management mode
5	Hwang	2004	No	35	N/M	N/M	2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hesion between nursing students
6	Kim	2006	No	56	N/M	N/M	3	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posttest	Ego identity, self 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7	Jung, Kim, Yoo, Kim, Won	2007	No	91	84(92.3)	7 (7.7)	1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Learning attitude, academic achievement
8	Lee	2010	No	154	149(96.8)	5 (3.2)	2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Self-efficacy, stress coping
9	Kwon, Kwag	2010	No	60	29(96.7)	1 (1.7)	2	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posttes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areer identity
10	Kwon, Kwag	2010	No	60	29(96.7)	1 (1.7)	2	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posttest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career maturity
11	Lee	2012	No	228	196(86.0)	32(14.0)	1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Learning styles
12	Lee, Kim, Chu	2013	No	267	N/M	N/M	1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Stress, stress coping, school adaptation
13	Park, Ku	2013	No	230	271(96.4)	10 (3.6)	2-4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Self-perception, clinical practice capability
14	Jang, Kim	2014	No	245	210(85.7)	35 (14.3)	1-3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Learning styles, learning strategies
15	Go	2014	No	51	N/M	N/M	1-3	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posttest	Self-efficacy, anxiety, self-esteem
16	Chae	2016	No	127	120(94.5)	7 (5.5)	1-4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17	Jang, Park	2016	Yes	60	38(92.7)	3 (7.3)	4	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posttest	Problem solving ability, communication capability, clinical practice cap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18	Han, Kim	2017	No	267	251(94.0)	16 (6.0)	2-3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adjustment to college life
19	Park, Jang	2018	Yes	290	269(92.8)	21 (7.2)	2-4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Stress, quality of sleep, social support
20	Chung, Kang	2018	No	365	311(85.2)	54(14.8)	N/M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21	Yun, Kwak, Kwon	2019	No	227	120(83.3)	24(16.7)	1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Learning style, academic achievement
22	Park, Kim	2021	No	200	180(90.0)	20(10.0)	3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Decision-Making sty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N/M=Not mentioned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levant studies

(N=22)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2000	1(4.5)
	2001~2010	9(40.9)
	2011~	12(54.5)
IRB	No	20 (90.9)
	Yes	2 (9.1)
Sample size	≤ 100	8 (36.4)
	≤ 200	5 (22.7)
	≤ 300	8 (36.4)
	≤ 400	1 (4.5)
Gender of subjects	Both	13 (59.1)
	N/M	9 (40.9)
Grade of subjects	1	4 (18.2)
	2	6 (27.3)
	3	2 (9.1)
	4	1 (4.5)
	1-3/2-3/2-4/1-4	8 (36.4)
	N/M	1 (4.5)
	Study design	Non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al)
Quasi-experimental research		8 (36.4)
<i>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posttest</i>		6 (75.0)
<i>Non-equivalent control-group posttest-only</i>		1 (12.5)
<i>One-group pretest-posttest</i>		1 (12.5)
Analysis method	Descriptive analysis, t-test, χ^2 , ANOVA, ANCOVA	9 (40.9)
	Descriptive analysis, t-test, χ^2 ,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8 (36.4)
	Descriptive analysis, t-test, χ^2 ,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gression analysis	5 (22.7)

N/M= Not mentioned

Table 3. Main study variables related to MBTI

(N=49)		
Categories	Frequency of Variables (n)	N (%)
Learning related variables	Learning style (3)	12 (24.5)
	Academic achievement (2)	
	Clinical practice capability (2)	
	Learning attitude (1)	
	Learning strategy (1)	
	Scholastic assessment test score (1)	
	Grade point average (1)	
Cognitive-Perceptual related variables	Problem solving ability (1)	14 (28.6)
	Self-efficacy (3)	
	Self-esteem (2)	
	Academic self efficacy (1)	
	Self-perception (1)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1)	
	Ego identity (1)	
Career identity (1)		

	Career maturity (1) Critical thinking (1) Self-leadership (1) Decision-making styles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ated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4) Communication ability (2) Empathic ability (1) Assertiveness behavior (1) Conflict management mode (1) Coheision between nursing students (1)	10 (20.4)
Stress related variables	Stress coping (3) Stress (2)	5 (10.2)
ETC	Anxiety (1) State anxiety before initial clinical experience (1) Defence mechanism (1) Emotional intelligence (1) School adaptation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1) Quality of sleep (1) Social support (1)	8 (16.3)

3.3 MBTI 측정도구

MBTI 측정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는 Table 4와 같이 Kim과 Shim [10]의 도구로 총 15편(68.2%)에서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어세스타의 MBTI® (2013) 도구로 총 3편 (13.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Table 4. Tools of MBTI

(N=22)	
Tools	n (%)
Kim & Shim (1990)	15 (68.2)
Kim & Shim (1993)	1 (4.5)
Kim, Shim & Je (1995)	2 (9.1)
Kim & Shim (2007)	1 (4.5)
MBTI® (2013)	3 (13.6)

3.4 간호학생의 MBTI 성격유형

총 22편의 분석대상 연구 중에서 16가지 MBTI 유형을 제시하지 않은 8편을 제외하고 총 14편의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의 MBTI 성격유형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대상자 총 3,114명을 분석한 결과 총 16가지 MBTI 성격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ISTJ (12.3%) 유형이었고 ESTJ (11.5%) 유형, ESEJ (11.2%) 유형, ISFJ (10.2%) 유형 등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INFJ (1.7%) 유형, INTJ (1.4%) 유형 등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Table 5. MBTI types of subjects

(N=22)

ID	MBTI personality type																Subtotal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1	22	20	5	1	15	36	12	2	11	14	2	2	20	15	0	1	178
2	47	24	3	9	14	11	7	8	12	16	16	12	38	30	4	19	270
3	35	22	2	1	9	10	5	0	16	19	13	8	33	16	4	2	195
8	27	14	2	3	6	6	4	5	8	7	6	5	31	5	3	3	135
11	45	13	4	4	25	12	4	8	20	19	12	7	40	13	1	1	228
12	43	32	7	6	14	9	10	4	13	17	15	7	34	35	12	9	267
13	28	37	12	6	4	15	7	9	11	22	28	3	21	40	30	8	281
14	29	21	2	2	12	10	5	3	12	30	20	14	30	32	11	12	245
16	11	12	1	0	4	7	2	2	12	13	14	7	15	20	7	0	127
18	32	26	2	7	12	28	21	10	15	32	28	8	17	18	10	1	267
19	5	5	2	0	3	6	1	1	3	6	13	2	5	7	4	3	66
20	33	31	1	2	8	18	10	6	17	30	24	8	42	40	9	11	290
21	14	34	2	2	11	37	7	3	28	79	45	6	15	50	21	11	365
22	13	26	9	1	5	16	9	5	4	23	16	11	16	28	16	2	200
Total n (%)	384 (12.3)	317 (10.2)	54 (1.7)	44 (1.4)	142 (4.6)	221 (7.1)	104 (3.3)	66 (2.1)	182 (5.8)	327 (10.5)	252 (8.1)	100 (3.2)	357 (11.5)	349 (11.2)	132 (4.2)	83 (2.7)	3114 (100.0)

4. 논의

본 연구는 현재까지 출판된 국내 간호학생 대상의 MBTI 관련 연구를 파악하고, 연구경향 파악 및 간호교육에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KCI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실린 국내 간호학생 대상의 MBTI 관련 연구는 1997년 최초의 연구가 출판된 이후로 2021년 9월까지 총 22편이 출판되었고, 10년 단위로 분석했을 때 관련 연구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논문은 모두 양적 연구로 연구설계는 63.6%가 비실험연구였으며, 모두 횡단적 연구였다. 그런데 McPhail [9]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직접간호, 행정, 교육, 연구의 네 분야 실무에 종사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Yune과 Park [37]의 의과대학생 5년 추적 연구에 의하면 MBTI 성격유형은 전공선택에 있어서, 외향형(E)-내향형 선호지표와 전공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chi^2=10.977$, $p=0.004$), 내향형(I) 선호지표는 외과계열보다 내과계열과 진료지원계열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MBTI

성격유형에 따라 병원내 부서 선택이나 병원, 학교, 보건소 등의 실무분야 선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연구를 통해 추후 간호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한 연구주체의 심층적 의미분석이나 이해 등을 통해 연구주체를 더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실험연구는 모두 8편이었는데 모두 유사실험연구였으며, 그 중에서 75.0%가 비동등성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였다. 추후 순수 실험연구를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9.1%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교수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취약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간호학생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 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2학년과 1학년 대상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2개 이상의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36.4%로 가장 많았는데, 2개 이상의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인관계, 임상수행능력 등 변수의 특성이 임상실습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이것은 실무를 기반으로 하는 실용학문인 간호학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분석방법을 분석해보면 회귀분석 연구는 22.7%로 추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회귀분석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구조모형 등의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연구변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변수는 인지-지각 관련 변수였으며 자기효능감 [20,22,29], 자존감[29,34] 등의 변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학습관련 변수가 많이 연구되고 있었는데 MBTI 성격유형과 학습스타일 [25,28,35]이나 학업성적[21,35], 임상실습능력 [27,31] 등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논문들이었다. 이는 실무를 기반으로 하는 실용학문인 간호학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간호교육목표는 졸업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할 실제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38], 교수자들의 연구가 이론과 실습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단독 변수로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변수는 대인관계로 4편의 논문[19,20,23,34]에서 연구되었으며, 학습스타일 3편[25,28,35], 자기효능감 3편[20,22,29] 스트레스 대처방식 3편[22,26,32] 등이 있었다. 대인관계를 연구한 논문 4편 중에서 3편이 실험연구로 MBTI 기본프로그램, MBTI 자기성장프로그램,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후 간호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는지 연구하였는데, Kim [20]의 연구와 Kwon과 Kwag [24]의 연구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Hwang [17]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비실험 연구인 Chung과 Kang [34]의 연구에서는 MBTI 성격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능력에 유의한 차이($F=3.014$, $p<.000$)가 있었으며 ENFP 유형이 대인관계 능력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면 추후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연구에서는 대상자별로 성격유형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실험중재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실험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스타일은 3편의 논문[25,28,35]이 있었는데, Lee [25]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MBTI유형에 따른 학습스타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내향성 대학생이 숙고 학습스타일을, 외향성 대학생이 활동형 학습스

타일의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Jang과 Kim [28]의 연구와 Yun 등[35]의 연구에 따르면 MBTI 성격유형별로 학습스타일의 종류별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추후 MBTI유형별로 맞춤형 상담 및 학습지도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3편[20,22,29]의 논문에서 연구하였는데, Lee [22]의 연구에서는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t=4.20$, $p<.001$)이 높았고,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t=2.16$, $p=.03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각형과 직관형, 판단형과 인식형간의 자기효능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치위생과 학생 대상 연구[39]에서도 MBTI 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추후 관련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나머지 두 편은 실험연구로, 두 편 모두 MBTI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대조군과 비교하여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20,29]. 자기효능감은 Bandura [40]가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의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 환경적 요소가 학습과정에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아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자기효능감은 지정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과정을 조직화(organize)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이러한 판단은 자신의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주어진 자원이나 해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화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1]. MBTI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개인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각시켜주기 때문에[42],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자기의 선천적인 선호경향과 그 장점 및 강점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20], 간호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이러한 중재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순수 실험연구를 통해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연구한 논문은 3편[22,26,32]이 있었는데 모두 조사연구로 Lee [22]의 연구에서는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문제중심 대처방식 중에서 사회적 지지추구($t=3.11$, $p=.002$)와 능동적 문제해결($t=2.06$, $p=.041$)에서 모두 높았고, 사고형이 감정형

다 그리고, 판단형이 인식형보다 능동적 문제해결이 높은 것으로 각각($t=2.75, p=.007; t=3.28, p=.001$) 나타났다. 그러나 감각형과 직관형 간의 문제중심 대처방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정서중심 대처방식의 차이검정 결과에서는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소망적 사고($t=-4.07, p<.001$)가 높았고, 감정형이 사고형보다 소망적사고($t=-2.03, p=.044$)와 정서적 완화($t=-3.13, p=.002$)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각형과 직관형, 판단형과 인식형 간의 정서중심 대처방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Lee 등[26]의 연구에서는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과 4가지 심리기질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Han과 Kim [3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MBTI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등을 연구하였으나 MBTI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MBTI 측정 도구는 Kim과 Sim [10]이 처음으로 한국표준화 연구를 통해 한국어 도구를 개발 한 이후 간호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 도구가 업그레이드되는 버전에 따라 연구에 순차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어세스타의 MBTI® (2013)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국내 간호학생 대상의 MBTI 유형결과를 분석한 결과 ISTJ (12.3%) 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Kim과 Shim [10]이 일반인 남녀 4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STJ (32.2%)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한국 대학생 1,44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STJ (16.9%)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간호학생의 MBTI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ISTJ 다음으로 ESTJ, ESFJ, ISFJ 등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Kim과 Shim [10]이 한국 대학생 1,44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ISTJ (16.9%) 다음으로 ESTJ (13.1%)가 두 번째 순서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ISFJ (8.5%), ISTP (8.0%), ISFP (7.8%) 등의 순으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Kim과 Shim

[10]의 연구에서 여대생 645명 만을 분석한 결과는 ISTJ (16.9%), ESTJ (13.2%), ESFJ (8.8%), ISFJ (8.7%)로 본 연구결과와 순서가 일치하고 있어, 본 연구 대상자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한국 여대생의 성격유형과 더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성격유형별 분포 정도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는데 Hardigan과 Cohen [43]은 7개 보건 관련 전공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대생과 약대생은 ISTJ 유형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PA (Physician Assistant)학과 학생은 ESFJ 유형의 빈도가 가장 높은 등 학과별로 성격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특정한 전공학과에 특정한 성격유형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고 보고한 결과를 고려하면, 이는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간호학생들 중 가장 빈도가 높은 ISTJ 유형은 내향적-감각적-사고적-판단자들로, 내향성(I)의 경우 집중력이 강하고 반성적 사고를 좋아하는 목표지향적인 학습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감각적(S) 유형의 학습자는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순차적인 강의를 선호하며, 사고적(T) 성향을 지닌 학습자는 명확한 학습목표와 학습과정을 선호하며, 판단형(J) 유형 학습자들은 단호하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학습과제를 완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과 요점만을 알고 싶어 하며 판단에 따른 행동을 매우 빠르게 실천한다[44]. 그러므로 이들의 성격유형을 고려한 학습전략이나 상담지도를 통해 학습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유형의 학생들도 각 성격유형별로 적합한 학습전략과 상담지도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중재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다.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여러 직종의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자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직업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업이다. MBTI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유형 상의 차이를 미리 예견하여 더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며[45], 개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개인의 고유한 장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유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게 되므로[29], 간호학생이 자신의 MBTI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성격유형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향후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MBTI 관련 연구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간호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종단연구를 통한 MBTI 성격유형과 근무부서 선택 등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에서 진로지도에 활용하거나, 신입간호사 근무부서 배치 등에 활용한다면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직률 감소의 한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질적연구를 통해 연구주제의 범위와 깊이를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추후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순수 실험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학생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교수자에 의해 수행됨을 감안하면 간호학생은 취약한 대상으로 추후 이루어지는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겠다.

국내 간호학생 대상의 MBTI 유형결과를 분석한 결과 ISTJ유형이 가장 많았고 유형별 분포는 일반 대학생들과 차이가 있어, 간호학과 학생의 성격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ISTJ외에도 다양한 성격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팀별 활동이나 소규모 그룹 학습시에 학습자들의 성격유형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함으로써 성격유형에 맞는 효율적 학습전략 적용 등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출판 논문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간호학생 대상 MBTI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한 문헌분석 연구로 연구동향 파악 및 간호교육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국내의 5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KCI 등재 또는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총 112편의 논문 중에서 제목, 초록과 본문을 통해 연구주제와 맞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고 선정된 논문의 참고문헌 검토를 통해 관련 논문을 추가하여 총 22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장기적 종단연구를 통한 MBTI 성격유형과 근무부서 선택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질적연구를 통해 연구주제의 폭과 깊이를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 추후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순수 실험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학생으로 취약한 대상자 보호를 위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국내 간호학생 대상의 MBTI 유형결과를 분석한 결과 ISTJ유형이 가장 많았고, 유형별 분포는 일반 대학생들과 차이가 있어, 간호학과로 진학하는 학생의 성격유형이 다른 대학생들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MBTI 성격유형별로 효율적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D. S. Ones, C. Viswesvaran & S. Dilchert. (2005). Personality at work: Raising awareness and correcting misconceptions. *Human Performance*, 18, 389-404.
- [2] H. Eysenck. (1981). Psychoticism as a dimension of personality: A reply to Kasielke. *Zeitschrift fur Psychologie*, 189, 381-386.
- [3] T. Chamorro-Premuzic & A. Furnham. (2003). Personality predicts acade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two longitudinal university sampl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319-338.
- [4] T. Chamorro-Premuzic & A. Furnham. (2008). Personality, intelligence and approaches to learning as predictors of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596-1603.
- [5] P. C. Rutberg, B. King, E. Gauferg, P. Brett-Maclean, P. Dinardo & R. M. Frankel. (2017). Do medical student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the good doctor" change over time? Comparing humanism essays from a national contest in 1999 and 2013. *Academic Medicine*, 92(4), 537-543. DOI : 10.1097/ACM.0000000000001531
- [6] J. Y. Lim, I. Y. Yoo & S. N. Oh. (2001).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SAT score and GPA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835-845.

- [7] C. U. Bradham, F. C. Dlane & P. J. Thompson. (1990). Personality traits valued by practicing nurses and measured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9(5), 225-232.
- [8] A. Sand. (2003). Nurses' personalities, nursing-relating qualities and work satisfaction: a 10-year perspectiv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2(2), 177-187.
- [9] K. McPhail. (2002). The nursing profession, personality types and leadership. *Leadership in Health Sciences*, 15(1), 7-10.
DOI : 10.1108/13660750210415612
- [10] J. T. Kim & H. S. Sim. (1990). *Guidance of MBTI*, Seoul : Korean Psychological Laboratory.
- [11] S. Kim, J. H. Kim & Y. Hur. (2005). 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7(2), 107-119.
- [12] C. G. Kim, S. H. Kim, E. J. Choi, H. S. Rew, M. K. Cho & H. E. Jang. (2018). *Personality psychology*. Seoul: Hakjisa
- [13] N. A. Stilwell, M. M. Wallick, S. E. Thal & J. A. Burleson. (2000). Myers-Briggs type and medical speciality choice : a new look at an old question. *Teaching and Learning Medicine*, 12(1), 14-20.
- [14] T. G. Grandy, G. H. Westerman, R. A. Ocanto & C. G. Erskine. (1996). Predicting dentists' career choices using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127(2), 253-258.
- [15] M. Jung. (1997). Effect of MBTI growth program on the state anxiety of nursing students before initial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6(1), 70-81.
- [16] J. Y. Lim, I. Y. Yoo & S. N. Oh. (2001).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SAT score and GPA of students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5), 835-845. DOI : 10.4040/jkan.2001.31.5.835
- [17] S. S. Hwang & E. J. Kim. (2002). A study on MBTI personality type and defense mechan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4), 447-458.
- [18] J. H. Park. (2002). The relationships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assertiveness training to assertiveness behavior and conflict management mode.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3), 556-565.
- [19] S. S. Hwang. (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MBTI(Myers and Briggs Type Indicator) basic program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cience major students and their cohesio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8(1), 61-73.
- [20] M. H. Kim. (2006). The effects of MBTI based self growth program on ego identity, self 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2), 233-246.
- [21] H. K. Jung, M. S. Kim, Y. J. Yoo, S. O. Kim & D. Y. Won.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3(4), 516-525.
- [22] J. Y. Lee. (2010). MBTI personality type, self-efficacy and ways of coping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3), 219-227.
- [23] Y. H. Kwon & O. G. Kwag. (2010). Effect of ready plann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11), 4441-4448.
DOI : 10.5977/jkasne.2010.16.2.229
- [24] Y. H. Kwon & O. G. Kwag. (2010). Effects of a ready plann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2), 229-238.
- [25] K. E. Le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and learning styl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Global Health Nursing*, 2(1), 1-7.
- [26] Y. R. Lee, S. H. Kim & M. S. Ju. (2013). Stress, stress coping,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freshme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172-182.
DOI : 10.5977/jkasne.2013.19.2.172
- [27] I. Park & Y. Ku. (2013). Self-perception and clinical practice capability depending on personality of nursing students.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7(1), 33-48.
- [28] H. J. Jang & M. Kim. (2014). Temperament by MBTI Personality Types, Learning Styles and

- Learn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9), 400-410.
DOI : 10.5392/JKCA.2014.14.09.400
- [29] M. J. Go. (2014). The effect of MBTI self growth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3(1), 28-37.
DOI : 10.12934/jkpmhn.2014.23.1.28
- [30] M. O. Chae. (2016).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303-311.
DOI : 10.5762/KAIS.2016.17.4.303
- [31] H. J. Jang & J. S. Park. (2016). Effectiveness of simulation problem-based learning for community visit nursing according to Myers 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77-587.
DOI : 10.5977/jkasne.2016.22.4.577
- [32] Y. M. Han & S. H. Kim. (2017). Effect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8), 124-134.
DOI : 10.5762/KAIS.2017.18.8.124
- [33] D. H. Park & E. H. Jang. (2018). Stress, quality of sleep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Mye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29-538.
DOI : 10.15207/JKCS.2018.9.11.529
- [34] S. Y. Chung & G. Y. Kang. (2018). MBTI personality typ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ing-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1), 289-303.
DOI : 10.22251/jlcci.2018.18.11.289
- [35] H. J. Yun, E. M. Kwak & S. Y. Kwon.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learn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2), 247-255.
DOI : 10.17703/JCCT.2019.5.2.247
- [36] J. M. Park & J. H. Kim. (2021). Decision-making sty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5(1), 37-46.
DOI : 10.38083/JKNS.25.1.202102.037
- [37] S. J. Yune & K. H. Park.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 academic achievement of undergraduate and medical specialty choice of residents: a 5-year follow-up stud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7), 391-399.
- [38] M. W. Kim. (2006). Development of objectives of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2), 389-402.
- [39] J. Y. Jang & H. K. Yun. A study on the MBTI personality types and self-efficacy for the dental hygiene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15(3), 219-229.
- [40] A. Bandura. (2006). *Adolescent development from the agentic perspective*. In: F. Pajares, T. Urdan editor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Greenwich, England: Information age publishing.
- [41]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42] J. T. Kim, H. S. Sim & S. P. Jeoi. (1995). *Development of MBTI and application*. Seoul : Korean Psychological Laboratory.
- [43] P. C. Hardigan & S. R. Cohen. (2003). A comparison of learning styles among seven health professions: Implications for optometric education. *The Internet Journal of Allied Health Sciences & Practice*, 1(1), 1-7.
- [44] S. Kim, J. H. Kim & Y. Hur. (2005). 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7, 107-120.
- [45] C. G. Jung. (197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홍 은 영 (Eunyoung Hong)

[정회원]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건강증진, 보건교육, 여성건강
- E-Mail : heyne@hanmail.net